

# 도쿄올림픽, 주사위는 던져졌다...태극전사 최종 담금질

### 29개 종목 332명 대한민국 선수단 출전

### 금 7개·은 11개·동 14개 톱 10 달성 목표

하루 뒤면 시작 전부터 여러 이슈들로 뒤숭숭한 2020 도쿄올림픽의 개막이 꼭 열릴 것으로 다가온다.

도쿄올림픽은 23일 도쿄국립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8월8일까지 열전에 돌입한다.

성대한 잔치로 전 세계에 강대국의 위력을 뽐내겠다는 일본의 바람은 안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1년 연기를 택할 때만 해도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컸지만, 확산세가 그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무관중(도쿄 등 수도권 지역 기준) 대회로 역사에 남게 됐다.

태극전사들은 전례 없는 뒤숭숭한 이야기들을 애써 외면한 채 최상의 결과만을 위해 지금도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한 현지 훈련이 어려울 만큼 여는 때보다 현 시점에서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종합 순위 10위 이내에 들었다. 29종목 332명이 나설 이번 대회의 목표는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로 톱 10을 유지하는 것이다.

진천선수촌에는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는 남자 수영 기대주 황선우는 "평소와 달리 조금은 약조건에서 시작되는 올림픽인데 후회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태권도에서

는 6명 전원이 메달 후보다. 과거와 달리 다른 국가들의 기량이 많이 좋아져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선수들은 남다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남자 80kg 초과급 인교돈(한국가스공사)은 "올림픽 경험이 있는 선수도, 처음인 선수도 있지만 6명 모두 금빛 발차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결의에 찬 대표팀 분위기를 전했다.

프로 선수들이 주를 이루는 축구와 야구는 선수촌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조직력을 다진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대표팀은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발을 맞추는 중이다. 평가전 파트너 선정도 마쳤다. 13일에는 아르헨티나, 16일에는 프랑스를 상대로 기량을 점검한다.

2008년 베이징대회 영광 재연을 꿈꾸는 야구대표팀은 이번 주까지 예정된 프로야구 일정을 소화한 뒤 19일부터 합숙에 돌입한다. 야구대표팀은 대표팀 기술위원회가 선정한 24명의 라이징 스타팀 선수단과 23일 고척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0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장인화 선수단장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에 수여받은 단기를 흔들고 있다.

카이동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리허설을 실시한다.

한편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은 17일부터 종목별 일정에 맞춰 일본행 비

행기에 몸을 싣는다. 본진은 19일 도쿄로 떠난다.

## '소리없는 제전' 아슬아슬 방역올림픽 앞둔 일본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개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쿄 올림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쿄 국립경기장 주변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도쿄올림픽은 사상 최초 무관중 대회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지난 8일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 여부에 관한 5자 협의를 갖고 도쿄 등 수도권에 있

는 경기장의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후쿠시마현 등 곳곳에서 무관중 의사를 밝혔다. '부흥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은 후쿠시마까지 관중 유치를 포기한 것이다.

현재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시즈오

### 올림픽 관계자 수만명 도쿄에 모여 방역 '비상' 코로나19 발생시 대회 도중 일정 차질 '불가피'

카현 등 3개 지역에서만 일부 관중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일본 전역에서 무관중 대회가 열릴 수도 있다. 입장권 수익이 사라져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소비, 지출 효과도 사라져 올림픽 이후 전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올림픽 대목을 기대했던 호텔은 무더기 취소로 존폐 위기에 몰렸고, 식당 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림픽 125년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대회가 현실화 된 것이다.

도쿄올림픽을 11일 앞둔 현재 도쿄 인근에서는 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도쿄올림픽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3일에도 대규모 반대 시위가 개최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한

비난이 상당하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이 코로나로 인해 몰락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에 방문하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IOC는 그동안 "인류대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올림픽은 개최된다", "도쿄에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무조건 개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바흐 위원장은 "수십억 명의 세계인이 TV를 통해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을 도쿄로 초대한다. 경기장에서 만나자"라고 말했다.

일본의 상당수 국민들은 "IOC의 무리한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일본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올림픽 개막 시점에 도쿄도에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미 일본에는 수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입국을 시작했고, 올림픽

관계자, 취재진 등 곧 수 만명이 도쿄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수 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수촌에서 감염자가 속출할 경우, 대회 도중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

사는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안심·안전 올림픽을 마음껏 즐기라"고 전했다.

일본 국민들은 "긴급사태 속에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안심·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맹비난했다.

관중도, 함성도 없는 올림픽은 최악의 흑역사 속에서 서막을 열고 있다.

뉴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인광학교 상담센터	222-5666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된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